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현 아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질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주의집중문제 및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양상이 병적소질-스트레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과 차별적 민감성 가설(differential susceptibility hypothesis) 중 어떤 이론에 더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4,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 1754명의 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이 3세일 때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족하거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아동이 4세에 더 많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그 양상은 병적소질-스트레스 모델에 근접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아버지의 영향력을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아동의 기질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아버지, 양육행동, 부정적 정서성, 기질, 외현화 문제행동

[†] 교신저자: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크게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나뉘는데(Wenar & Kerig, 2000), 내재화 행동은 불안, 위축, 우울 등을 포함하고, 외현화 행동은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충동성 등을 아우른다(Campbell, Shaw, & Gilliom, 2000; Frick & Silverthorn, 2002). 특히 외현화 문제는 아동기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많이 호소되며(Garland et al., 2001; Zwirs et al., 2007),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또래 등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onenberg & Baker, 1993; Wenar & Kerig, 2000). 선행 연구에 따르면, 외현화 행동문제로 인해 학업문제(Wenar & Kerig, 2000), 사회성 발달의 저해(Murray-Close et al., 2010)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녀의 외현화 문제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Donenberg & Baker, 1993) 부모의 삶의 질과 가족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aw-Zirt, Popali-Lehane, Chaplin, & Bergman, 2005). 아동기 외현화 문제는 이후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Campbell et al., 2000), 외현화 문제에 취약한 아동을 미리 선별하고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현화 문제의 예측요인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개인적 요인인 기질과 환경적 요인인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Rinaldi & Howe, 2012; Sanson, Hemphill, & Smart, 2004).

개인 내적 요인인 기질은 정서, 주의, 행동적 반응성 및 자기조절에 있어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개인차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2006). 기질은 부정적 정서성, 자기조절 등 여

러 차원을 포함하며(Sanson et al., 2004), 이들의 조합에 따라 기질 유형을 나누려는 시도도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Thomas, Chess, Birch, Hertzog와 Korn(1963)은 기질을 쉬운 기질(easy temperament)과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로 구분하였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환경 자극에 대한 부정적이고 격렬하고 불규칙적인 반응을 특징으로 하며(Sanson et al., 2004), 외현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van Zeijl et al., 2007). 본 연구에서 포함하는 기질 차원인 부정적 정서성(negative emotionality)은 까다로운 기질의 핵심 요소로(Bates, Freeland, & Lounsbury, 1979), 아동이 분노, 짜증 등 부정적 정서를 쉽게 느끼고 진정이 잘 되지 않는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Eisenberg et al., 2005; Sanson et al., 2004).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많은 부정적 정서를 보이고, 더 예민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Chang, Shelleby, Cheong, & Shaw, 2012).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면 이를 조절하기 위한 부담이 커지며,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통제하기 어려워져 외현화 문제행동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험연구에서도 높은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일관되게 예측하였다. 예를 들어 Eisenberg 등(2009)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성 중에서도 특히 분노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높았고, Schultz, Izard와 Bear(2004)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분노 표현이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향후 외현화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 내적 요인인 기질 외에도 외부 환경 요인 또한 아동기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는 아동이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보내며 물리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이자 아동의 사회화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부모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에서도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일관되게 지지하였다(Forgatch, Patterson, Degarmo, & Beldavs, 2009; Rinaldi & Howe,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은 크게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가혹하며 체벌, 비난 등의 방법으로 자녀를 부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van den Akker, Deković, Prinzie, & Asscher, 2010). 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관심을 보이는 차원 뿐 아니라(Beane, Barber, & Crane, 2006),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칙과 통제를 제공하는 행동 또한 포함한다(Barber, Stolz, Olsen, Collins, & Burchinal, 2005). 부정적 양육행동이 낮다고 하여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녀의 적응에 있어 이들 각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선행연구는 대부분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한 기존 연구 역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다룬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는 다른 긍정적 양육행동의 독립적인 효과가 지지되었다. Gardner, Shaw, Dishion, Burton과 Supplee(200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적절한 보상이나 놀이 환경, 또는 자녀와의 협의에 기반한 훈육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은 비난, 고함지르기 또는 체벌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통제 한 뒤에도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를 예측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부정적 양육행동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의의가 있지만, 실제적 시사점이 크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즉, 일반적으로 심한 체벌이나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보다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부재하는 가정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실제 개입 장면에 활용할만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칠 수 있는 고유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각각 독립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radley & Corwyn, 2008). 다시 말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아동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개인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아동의 기질이다(Belsky & Pluess, 2009). 그동안 기질과 양육행동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적응을 결정짓는 기제는 두 가지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첫 번째는 병적소질-스트레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로, 이 이론에서는 기질처럼 생물학적 기반이 있는 개인 내적 요인을 ‘취약성’으로,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이나 부정적인 생활 사건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을 ‘스트레스’로 정의한다(Zuckerman, 1999). 이 이론에 따르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

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환경적 영향과 무관하게 이미 적응적 어려움을 보일 위험이 높은 가운데, 환경적 스트레스가 없을 때 얻는 이득은 적은 반면,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적응문제를 보일 위험은 더 높다(Yaman, Mesman, van IJzendoorn, & Bakermans-Kranenburg, 2010). 즉 개인 내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이 함께 작용하면 개인이 부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의 상승효과(synergic effect)가 나타난다. 만약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더라도 더 나은 수준의 적응을 보이지는 않는다면 이 이론과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를 설명하는 두 번째 모델은 차별적 민감성 가설(differential susceptibility hypothesis)로, 이 이론에서는 병적소질-스트레스 모델에서 ‘취약성’으로 간주된 개인의 내적 특질을 ‘민감성’이라고 주장하였다(Belsky & Pluess, 2009). 즉 기질 또는 유전적 요인에 따라 개인마다 환경에 민감한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Belsky,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7; Belsky & Pluess, 2009). 취약한 개인이 부정적인 외부 환경에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병적소질-스트레스 모델과 달리, 차별적 민감성 가설에 의하면 민감한 개인은 부정적인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 환경에도 민감하다(Belsky & Pluess, 2009).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즉 민감한 아동은 부모가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에는 외현화 문제를 보일 위험이 높지만,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에는 민감

성이 낮은 아동보다도 오히려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각 이론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누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Chang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높은 부정적 정서성을 보일 때에는 빈곤이나 부부 갈등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의 누적 효과가 외현화 문제행동의 주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인 정서조절곤란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반면, 아동이 낮은 부정적 정서성을 보일 때에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병적소질-스트레스 이론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Pluess와 Belsky(2009)의 연구에서는 차별적 민감성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은 보육환경의 질에 관계없이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반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보육환경의 질에 따라 문제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 즉 환경적 영향에 민감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보육환경의 질이 낮을 때에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던 반면, 보육환경의 질이 높을 때에는 문제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아동의 내적 소질과 환경적 요인의 조합이 아동의 적응을 예측하는 기제를 설명하고자 하지만, 후속 연구나 개입의 방향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다소 상이하다. 먼저 병적소질-스트레스 모델의 접근에 따르면 아동의 적응에 있어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질은 취약성으로만 작용하므로 후속 연구나 개입에서도 이러한 개인 내적 취약성을 낮추거나 부적응적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 차별적 민감성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환경에의 민감성을 의미하므로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취약성이지만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 자체를 낮추는 노력보다는 이러한 기질이 장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각각 독립적으로, 또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기도 한다. 첫 번째, 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다룬 기존의 부모 연구들 중 외현화 문제를 세분화하여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 주의문제 등 여러 문제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Frick & Silverthorn, 2002). 이러한 문제행동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고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정신장애와의 관련성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주의문제나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핵심 증상인 반면, 공격 행동은 반항성 장애 또는 품행장애의 주요 증상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장애마다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Tuvblad, Zheng, Raine, & Baker, 2009), 외현화 문제에 속하는 문제행동들 간에도 그와 관련한 기제가 다를 수도 있는 바, 외현화 문제를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아동 및 부모 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존의 부모 연구들은 주로 어머

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아버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Goodman et al., 2011; Khaleque & Rohner, 2002).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 또한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Lamb, 2000), 아동의 다양한 발달적 측면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Chang, Schwartz, Dodge, & McBride-Chang, 2003; Rinaldi & Howe, 2012).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행동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과 같은 자녀의 사회화 행동을 강조하는 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독립성이나 자기주장과 같은 도구적 행동을 기를 것을 강조한다(Power & Shanks, 1989). 아울러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관여하거나 이와 관련한 훈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Platz, Pupp, & Fox, 1994),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예방에 있어 특히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어머니와는 다른 아버지의 고유한 영향력은 경험연구에서도 지지되었는데, Bronte-Tinkew, Moore와 Carrano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영향력을 통제 한 뒤에도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의 감소를 예측하였고,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를 예측하였다.

한편,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성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문제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의 영향력에서도 성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

르게 나타나는데, Tuvblad, Grann과 Lichrenstein (2006)의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의 영향력이 여자에게서 더 높았던 반면,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은 남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주의집중문제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서 유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한 성차는 대체로 크지 않으나 연구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다(Hinshaw & Blachman, 2005). 공격성과 관련한 Ramchandani 등(2013)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남아의 공격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 여아의 공격행동과는 관련이 없었다. 비록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별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한 요인들의 차별적인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인 역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Côté, Vaillancourt, LeBlanc, Nagin, & Tremblay, 2006), 가구소득이 적을수록(Shaw & Shelleby, 2014) 자녀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다. 따라서 성별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고유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그리고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때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뒤, 외현화 문제의 유형 및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지도 탐색할 것이다. 또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다면 그 결과가 병적소질-스트레스 모델과 차별적 민감성 가설 중 어느 모형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 하에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다른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다른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다른가?

연구문제 4.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및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유형 및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가?

방 법

연구 대상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4차년도(2011), 5차년도(2012)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와 자녀 17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아는 903명(51.5%)이었으며 여아는 851명(48.5%)이었다. 남아와 여아의 연령 범위는 4차년도 만 35개월에서 만 42개월, 5차년도 만 49개월에서 만 55개월이었고, 평균 연령은 남아와 여아 모두

4차년도 만 38개월($SD=1.47$), 5차년도 만 52개월($SD=1.24$)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4차년도 당시 만 22세에서 만 53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36세였다($SD=4.04$).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742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452명(26%), 전문대 졸 351명(20.2%) 순이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최저 100만원 이하, 최고 1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월 2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529가구(30.2%)로 가장 많았다.

연구 도구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16개 자기보고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의 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것으로,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정적 양육은 부모의 반응적이고 지지적인 행동(예: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을 포함하고, 통제적 양육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적절한 환경 설정과 합리적인 통제를 가하는 행동(예: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나는 아이가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한다)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반응적이고 지지적이며, 자녀의 행동에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는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척도의 두 하위요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133, p<.01$), 내적합치도 또한 양호한 수준(Cronbach's $\alpha =$

.82)이므로 두 하위요인을 합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4차년도(2011)에 수집된 것으로 아버지가 직접 응답한 자료이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Buss와 Plomin(1984)의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EAS) 부모용으로 평가하였다. EAS는 활동성, 사회성, 정서성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정서성’ 영역의 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정서성’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어머니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서성’은 4차년도(2011년)에 수집된 자료이며, 내적합치도는 .73이었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1.5-5세용 척도를 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2009)가 한국판으로 번역 및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CBCL은 내재화, 외현화, 수면 문제, 기타문제, DSM 진단척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외현화 문제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외현화 문제 척도는 주의집중문제 하위척도와 공격행동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의집중문제는 5문항(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공격행동은 19문항(예: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는 5차년도(2012)에 수집된 자료이며, 어머니가 평정한 결과이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의 내적합치도는 .88이었고, 하위요인인 주의집중문제는 .57, 공격행동은 .87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료 분석시 통제변인으로 4차년도(2011)에 측정된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월 평균 가구소득 자료를 포함하였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8점 척도(1=무학; 8=대학원 박사 졸업)로 평정하였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은 만 원 단위로 보고되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월 평균 가구소득 모두 숫자가 클수록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모든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에서 남녀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성별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분석과 성별을 구분한 분석을 모두 실시하였다. 본 분석으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대해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

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 성별, 아버지의 최종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통제되었고, 두 번째 단계에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주효과, 마지막 단계에는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상호작용효과가 포함되었다. 상호작용효과 분석 시에는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고자 회귀분석에 앞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이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다면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하여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그 점수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하인 아동과 1 표준편차 이상인 아동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성별 코딩은 남아는 1로, 여아는 2로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측정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아동이 3세일 때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r=-.119, p=.000$)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r=.335, p=.000$)은 아동이 4세 때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었는데, 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r=-.095$,

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1. 아동 성별	-							
2. 아버지 최종학력	-.004	-						
3. 월 평균 가구소득	.033	.314***	-					
4. 아버지 양육행동	.007	.140***	.066**	-				
5. 부정적 정서성	.020	-.040	-.046	-.088***	-			
6. 외현화 문제행동	-.116***	-.095***	-.114***	-.119***	.335***	-		
7. 주의집중문제	-.119***	-.123***	-.132***	-.100***	.167***	.699***	-	
8. 공격행동	-.103***	-.079**	-.100***	-.112***	.347***	.981***	.546***	-
평균	-	5.364	4.145	56.838	14.368	7.769	1.291	6.495
표준편차	-	1.019	1.760	6.636	3.077	5.828	1.358	4.983

주. *** $p < .001$, ** $p < .01$

$p = .000$), 월 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r = -.114$, $p = .000$)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

상관분석 결과, 아동의 성별이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 주의집중문제 및 공격행동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t = 4.702$, $p = .000$), 주의집중문제($t = 4.840$, $p = .000$) 및 공격행동($t = 4.172$, $p = .000$)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표 2.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변인	남 ($n = 903$)		여 ($n = 851$)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양육행동	56.791	6.575	56.887	6.703	-.292
부정적 정서성	14.308	3.074	14.431	3.082	-.822
외현화 문제행동	8.484	6.010	7.123	5.597	4.702***
주의집중문제	1.450	1.363	1.128	1.326	4.840***
공격행동	7.048	5.202	6.015	4.732	4.172***

주. *** $p < .001$

외, 아버지 양육행동($t=-.292, p=.771$)과 부정적 정서성($t=-.822, p=.411$)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현화 문제행동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본래 성별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문제행동 수준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별을 나누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 연령 3세 때 측정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beta=-.084, p=.001$)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beta=.328, p=.000$)은 각각 아동 연령 4세 때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였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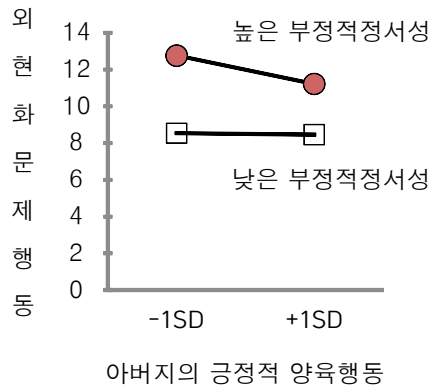
행동 수준이 낮았다. 이 때 아버지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038, p=.116$).

다음으로 성별을 나누어 분석했을 때 여아와 남아에게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남아의 경우, 아동이 3세일 때 측정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beta=-.097, p=.006$)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beta=.344, p=.000$)이 각각 독립적으로 아동의 4세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아버지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019, p=.570$). 이와 다르게 여아의 경우, 아동이 3세 때 측정된 아버지 양육행동($\beta=-.069, p=.048$)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beta=.313, p=.000$)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아버지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beta=-.064, p=0.062$).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그림 1),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여아에서는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하였다($b=-.115, p=.007$). 반면,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여아에게

표 3.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인	전체		남아		여아	
	β	SE	β	SE	β	SE
아동 성별	-.109***	.281	-	-	-	-
1단계						
아버지 최종학력	-.048	.146	-.021	.217	-.079*	.198
월 평균 가구소득	-.073**	.084	-.086*	.127	-.062	.112
2단계						
아버지 양육행동	-.084***	.021	-.097**	.031	-.069*	.029
아동 부정적 정서성	.328***	.046	.344***	.066	.313***	.064
3단계						
양육 x 부정적 정서성	-.038	.007	-.019	.009	-.064†	.009

주. *** $p<.001$, ** $p<.01$, * $p<.05$, † $p<.10$



서는 아버지의 양육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b=-.006$, $p=.878$).

주의집중문제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를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으로 나누어 외현화 문제 유형에 따른 아버지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결과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먼저 주의집중문제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이 3세 때 측정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beta=-.072$, $p=.005$)과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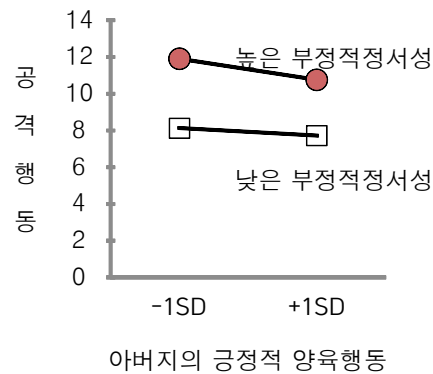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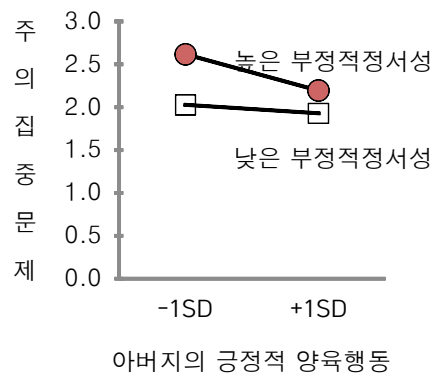
동의 부정적 정서성($\beta=.157$, $p=.000$)이 각각 아동 연령 4세 때 주의집중문제를 예측함에 따라 아버지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주의집중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러나 이 때 아버지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015$, $p=.543$).

다음으로 성별을 나누어 분석했을 때에는 남아와 여아에게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남아의 경우, 아동 연령 3세 때 측정한 부정적 정서성이 4세 때 주의집중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beta=.158$, $p=.000$), 아버지 양육행동의 주효과($\beta=-.055$, $p=.128$)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026$, $p=.462$).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아동이 3세 때 측정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beta=-.091$, $p=.012$)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beta=.162$, $p=.000$)이 각각 4세 때 측정한 주의집중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beta=-.068$, $p=.057$). 이

표 4.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영향

변인	전체		남아		여아	
	β	SE	β	SE	β	SE
아동 성별	-.112***	.068	-	-	-	-
1단계 아버지 최종학력	-.078**	.036	-.031	.052	-.133***	.049
월 평균 가구소득	-.079**	.020	-.107**	.030	-.046	.028
2단계 아버지 양육행동	-.073**	.005	-.054	.008	-.094**	.007
아동 부정적 정서성	.157***	.011	.158***	.016	.160***	.016
3단계 양육 x 부정적 정서성	-.015	.002	.026	.002	-.068†	.002

주. *** $p<.001$, ** $p<.01$, † $p<.10$



에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의 양상을 확인한 결과(그림 2),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여아에서는 아버지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주의집중문제가 증가한 반면($b = -.032, p = .002$),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여아에게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주의집중문제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b = -.007, p = .428$).

공격행동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아동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표 5).

먼저 남아와 여아를 함께 분석하였을 때, 아동이 3세 때 측정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beta = -.075, p = .002$)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beta = .343, p = .000$)이 각각 아동 연령 4세 때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함에 따라 아버지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공격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 상호작용효과가 아동의 공격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는 경향성 수준에서 유의하였다($\beta = -.041, p = .090$).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본

표 5. 아버지 양육행동, 아동 기질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인	전체		남아		여아	
	β	SE	β	SE	β	SE
아동 성별	-.095***	.239	-	-	-	-
1단계 아버지 최종학력	-.036**	.125	-.019	.187	-.056	.168
월 평균 가구소득	-.065	.071	-.072*	.108	-.062†	.095
2단계 아버지 양육행동	-.077**	.018	-.097**	.027	-.055	.025
아동 부정적 정서성	.342***	.039	.357***	.057	.326***	.054
3단계 양육 x 부정적 정서성	-.041†	.006	-.031	.008	-.057	.008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결과(그림 3),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공격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86, p = .001$). 반면,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에게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행동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b = -.031, p = .202$).

성별을 나누어 분석했을 때에는 세부 양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아의 경우, 아동 연령 3세 때 측정한 아버지 양육행동($\beta = -.094, p = .006$)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beta = .357, p = .000$)이 각각 아동의 4세 때 공격행동을 예측하였으나,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31, p = .367$). 한편, 여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3세 때 부정적 정서성이 4세 때 공격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한 반면($\beta = .327, p = .000$), 아버지 양육행동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52, p = .135$). 아울러 아버지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간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57, p = .100$).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아동 연령 3세 때 측정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1년 후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 연령이 3세

였을 때, 아버지가 정서적 지지와 반응을 잘 보이고 한계설정을 명확히 했을수록 1년 후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 두 번째, 아동이 3세일 때 부정적 정서성 기질을 높게 보일수록 4세에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증가하였다. 세 번째, 외현화 문제의 발달에 있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가 일부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기질의 주효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양육행동 수준에 관계없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지만,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부족할 시에는 특히 그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아버지의 학력과 가구수입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외현화 행동을 예측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기질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취약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 좌절, 두려움, 슬픔 등을 더 자주, 더 크게 경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Eisenberg et al., 2009). 또한 아버지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아동에게 반응하고, 아동에게 행동의 규칙과 한계를 명확하게 전달할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맥을 같이 한다(Renk, 2011). 그러나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함께 작용하여 아동의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경향성 수준이기는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데 더 많은 환경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예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민감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계설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분노나 좌절이 적절하지 못한 형태(공격행동 등)로 표출될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반면, 생물학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덜 자주, 더 적게 경험할 것이므로 이들에게는 적응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한 환경적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수준과 관계없이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종합하면, 아동의 기질에 따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높은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취약한 기질을 타고난 아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환경적 자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기질과 양육행동 간의 상호작용 양상은 차별적 민감성 가설보다는 병적소질-스트레스 모델에 더 근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지는 아동은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취약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이미 높다(Belsky et al., 2007). 이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성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수준과 관

계없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보다 항상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적소질-스트레스 모델에 따르면 취약성을 가지는 아동은 주변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더라도 큰 이득을 얻지 못한다(Yaman et al., 2010). 즉 이들에게 긍정적인 외부 환경이란 취약하지 않은 아동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취약성을 가지는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외부환경은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외부로부터 스트레스 사건이 주어지면 위협의 상승효과에 의해 더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Yama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설명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적게 주어질 때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증가하는 동시에, 아버지 양육행동의 긍정적 측면이 높아지더라도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여전히 높은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은 양육행동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과 무관하게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높은 부정적 정서성이라는 취약성을 가지는 아동에게 낮은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라는 외부 스트레스 사건이 더해지면 위협의 상승효과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경향성 수준이었고 추후 반복검증이 필요하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논하기 이전에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질적 요인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하는 바, 후속 연구 및 개입을 위한 계획 수립 시에도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기질과 같은 개인 내적 취약성의 수준을 낮추거나 그 영향력이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외현화 문제의 하위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공격행동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의 주효과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난 반면, 아버지 양육행동의 주효과는 남아에게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남아와 여아에게 공통적으로 공격행동의 위험요인인 반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남아에게만 공격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짐작케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바 있는데, Chang 등(2003)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남아의 공격성은 직접 예측하였으나 여아의 공격성은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격성과 관련하여 남아가 특히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그 기제 중 하나로 모델링(modeling)을 들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습자가 관찰하는 대상이 학습자와 유사할수록 관찰학습이 더 촉진되므로(Bandura, 1977), 아버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여아보다는 성별 등 아버지와 유사성을 더 많이 가지는 남아가 학습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부족한 아버지가 공격성 등의 외현화 행동이 실제 높은지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관찰학습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주의집중문제의 경우, 아버지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여아의 주의집중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한 통계적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남아의 주의집중문제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여아와 남아의 주의집중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와 관련하여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여아의 주의집중문제 간에 존재하는 유전의 영향력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적절하고 일관되게 관심을 기울여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데, 아버지가 일정 시간 이상 자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자녀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족한 아버지가 주의집중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주의집중문제의 유의한 관계는 유전적 영향의 결과일 수 있다. 이 때 문제행동과 관련한 유전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아에게서 그 영향력이 더 높다는 보고가 존재한다. Tuvblad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의 영향력이 남아의 경우 6%에 불과했던 반면, 여아의 경우 59%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문제행동과 관련한 유전적 취약성이 여아에게서 더 높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수준과 여아의 주의집중문제 간의 부적 관계 역시 유

전의 영향력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본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동이 보이는 외현화 문제의 유형에 따라 기질적, 환경적 위험요인의 비중이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Tuvblad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주의집중문제를 핵심 증상으로 하는 ADHD의 경우 유전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반면,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핵심 증상으로 보이는 반항장애와 품행장애의 경우,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도 외현화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문제와 관련된 위험 및 보호 요인들을 자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외현화 문제의 유형에 맞는 예방 및 치료 프로토콜 개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동의 성별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아동 성별의 효과는 연구마다 혼재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hee & Waldman, 2002; Subbarao et al., 2008; Tuvblad et al., 2009).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버지 양육행동은 서로 상관이 높기 때문에(Murray, Dwyer, Rubin, Knighton-Wilson, & Booth-Laforce, 2013), 어머니 양육행동을 통제하지 않은 본 연구의 아버지 영향력은 아버지만의 고유한 영향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통제하

뒤, 아버지의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질 간 상호작용 효과가 경향성 수준에서만 유의하였다. 그 이유로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정보제공자의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자기보고로 측정되었으며, 아동의 기질과 외현화 문제는 어머니가 보고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정보제공자를 사용한 것은 단일한 평정자로 인한 변인 간 관계의 과대 추정을 방지하고 연구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는 장점을 가지나, 유의한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본 연구에서 간과한 환경적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다. 기질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는 부모 요인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면(예를 들어 체벌이나 비난과 같은 강압적인 양육행동), 본 연구의 부모 변인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그러한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Nelson, Yang, Coyne, Olsen, & Hart, 2013),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논하는데 있어서도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가 보이는 양육행동이 대부분 체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긍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이라면, 본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부정적 측면이 통제되지 않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부

정적 양육행동의 일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독특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 양육행동의 부정적 측면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자녀의 기질이나 문제행동과 연관되는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아동의 기질도 함께 고려해야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개선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의 가능성과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때 외현화 문제의 유형이나 아동의 성별을 함께 고려한다면 보다 섬세한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아, 이 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 (2009). 한국판 Cbcl 1.5-5 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117-136.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Achenbach, T. M., & Rescorla, L. (2000).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An integrated system of multi-informant assessment*. Aseba.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ber, B. K., Stolz, H. E., Olsen, J. A., Collins, W. A., & Burchinal, M.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i-147.
- Bates, J. E., Freeland, C. A. B., & Lounsbury, M. L. (1979). Measurement of infant difficultness. *Child Development*, 50(3), 794-803.
- Bean, R. A., Barber, B. K., & Crane, D. R.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10), 1335-1355.
- Belsky, J.,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07). For better and for wors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6), 300-304.
- Belsky, J., & Pluess, M. (2009). Beyond diathesis stres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35(6), 885-908.
- Bradley, R. H., & Corwyn, R. F. (2008). Infant temperament, parent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first grade: A test of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hypothesi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2), 124-131.
- Bronte-Tinkew, J., Moore, K. A., & Carrano, J. (2006).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risk behaviors in intact

-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7(6), 850-881.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New York: Wiley.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3), 467-488.
- Chang, H., Shelleby, E. C., Cheong, J., & Shaw, D. S. (2012). Cumulative risk, negative emotionality, and emotion regulation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in transition to school: A mediated moderation model. *Social Development*, 21(4), 780-800.
- Chang, L., Schwartz, D., Dodge, K. A., & McBride-Chang, C. (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98-606.
- Côté, S., Vaillancourt, T., LeBlanc, J. C., Nagin, D. S., & Tremblay, R. E. (2006). Th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preadolescence: A nation wide longitudinal study of Canadia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10), 68-82.
- Donenberg, G., & Baker, B. L. (1993). The impact of young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s on their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2), 179-198.
-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 L., Fabes, R. A., Losoya, S. H., Valiente, C., . . . Shepard, S. A. (2005).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93-211.
- Eisenberg, N., Valiente, C., Spinrad, T. L., Cumberland, A., Liew, J., Reiser, M., . . . Losoya, S. H. (2009). Longitudinal relation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impulsivity,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their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co-occurr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88-1008.
- Forgatch, M. S., Patterson, G. R., Degarmo, D. S., & Beldavs, Z. G. (2009). Testing the oregon delinquency model with 9-year follow-up of the oregon divorce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2), 637-660.
- Frick, P. J., & Silverthorn, P. (2002). Psychopathology in children. In H. E. Adams & P. B. Sutker (Eds.), *Comprehensive handbook of psychopathology* (pp. 881-920).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 Gardner, F., Shaw, D. S., Dishion, T. J., Burton, J., & Supplee, L. (2007). Randomized prevention trial for early conduct problems: Effects on proactive parenting and links to toddler disruptive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398-406.
- Garland, A. F., Hough, R. L., McCabe, K. M., Yeh, M. A. Y., Wood, P. A., & Aarons, G.

- A. (2001). Prevalence of psychiatric disorders in youths across five sectors of car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4), 409-418.
- Goodman, S. H., Rouse, M. H., Connell, A. M., Broth, M. R., Hall, C. M., & Heyward, D. (2011).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4(1), 1-27.
- Hinshaw, S. P., & Blachman, D. R. (2005).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girls. In D. J. Bell, S. L. Foster, & E. J. Mash (Eds.), *Handbook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girls* (pp. 117-147).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Khaleque, A., & Rohner, R. P. (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54-64.
- Lamb, M. E.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An overview.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23-42.
- Murray, K. W., Dwyer, K. M., Rubin, K. H., Knighton-Wisor, S., & Booth-LaForce, C. (2013).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ggression: Maternal and patern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8), 1-13.
- Murray-Close, D., Hoza, B., Hinshaw, S. P., Arnold, L. E., Swanson, J., Jensen, P. S., . . . Wells, K. (2010). Developmental processes in peer problems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the multimodal treatment study of children with ADHD: Developmental cascades and vicious cycl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4), 785-802.
- Nelson, D. A., Yang, C., Coyne, S. M., Olsen, J. A., & Hart, C. H. (2013).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mensions: Connections with Russian preschoolers'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1-8.
- Platz, D. L., Pupp, R. P., & Fox, R. A. (1994). Raising young children: Parental perceptions. *Psychological Reports*, 74(2), 643-646.
- Power, T. G., & Shanks, J. A. (1989). Parents as socializers: Maternal and paternal view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2), 203-220.
- Pluess, M., & Belsky, J. (2009).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experience: The case of child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4), 396-404.
- Ramchandani, P. G., Domoney, J., Sethna, V., Psychogiou, L., Vlachos, H., & Murray, L. (2013). Do early father-infant interactions predict the onset of externalising behaviours in young children?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cohort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1), 56-64.
- Rhee, S. H., & Waldman, I. D. (2002).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antisocial behavior: a meta-analysis of twin and adoption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28(3), 490-529.
- Renk, K. (2011). Mothers' perceptions of young children, parenting, and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3(2), 123-138.

-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Editor-In-Chief)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New York: Wiley.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1), 142-170.
- Schultz, D., IZard, C. E., & Bear, G. (2004). Children's emotion processing: Relations to emotionality and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71-388.
- Shaw, D. S., & Shelleby, E. C. (2014). Early-starting conduct problems: Intersection of conduct problems and povert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0, 503-528.
- Shaw-Zirt, B., Popali-Lehane, L., Chaplin, W., & Bergman, A. (2005). Adjustment, social skills,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with symptoms of ADHD.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8(3), 109-120.
- Subbarao, A., Rhee, S. H., Young, S. E., Ehringer, M. A., Corley, R. P., & Hewitt, J. K. (2008). Common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3), 433-444.
- Thomas, A., Chess, S., Birch, H. G., Hertzog, M. E., & Korn, S. (1963). *Behavioral individuality in early childhoo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Tuvblad, C., Grann, M., & Lichtenstein, P. (2006). Heritability for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differs with socioeconomic status: Gene-environment interac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7), 734-743.
- Tuvblad, C., Zheng, M., Raine, A., & Baker, L. A. (2009). A common genetic factor explains the covariation among ADHD ODD and CD symptoms in 9-10 year old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2), 153-167.
- van den Akker, Alithe L, Deković, M., Prinzie, P., & Asscher, J. J. (2010). Toddlers' temperament profiles: Stability and relations to negative and positive parent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4), 485-495.
- van Zeijl, J., Mesman, J., Stolk, M. N., Alink, L. R., Van IJzendoorn, M. H., Bakermans-Kranenburg, . . . Koot, H. M. (2007).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discipl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 temperament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discipline and early childhoo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626-636.
- Wenar, C., & Kerig, P. (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McGraw-Hill.
- Yaman, A., Mesman, J.,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2010). Parenting and toddler aggression in second-generation immigrant families: The moderating role of child temperament. *Journal*

- of Family Psychology*, 24(2), 208-211.
- Zuckerman, M. (1999).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A biosocial model*.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Zwirs, B. W., Burger, H., Schulpen, T. W., Wiznitzer, M., Fedder, H., & Buitelaar, J. K. (2007). Prevalence of psychiatric disorders among children of different ethnic origi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4), 556-566.
- 1차원고접수 : 2017. 01. 08.
수정원고접수 : 2017. 02. 20.
최종게재결정 : 2017. 02. 24.

Independent and Interactive Effects of Paternal Positive Parenting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o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Hyunah Kim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dependent effects of paternal positive parenting, child temperament, and their interaction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We also explored whether the interactive effect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if evident, was more consistent with the diathesis–stress model or the differential–susceptibility hypothesis.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were used. Results indicated that both paternal positive parenting and child temperament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Consistent with the diathesis–stress model, children who had higher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and whose fathers showed lower levels of positive parenting were at most risk for behavior problems. The findings suggest that paternal parenting and child temperament may be a promising target for early prevention of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Key words : father, parenting, negative emotionality, temperament, externalizing behavior